

61. 어떠한 날 예수

작사 : 이원칠

1. 어떠한 날 예수 감람산에 기도하려 올라가실 때 철 모르는
 2. 주의 영광 스러운 심판날 어느 때에 일어나리까 주여 그 날
 3. 열처녀 중 다섯 처녀들은 지혜 있어 기름 가지고 그 다음에
 4. 열처녀 중 미련한 처녀들 기름사가 지고와 보니 신랑 빈객
 5. 그 날 그 때 알지 못 하므로 그러한즉 깨어 있으라 양과 염소

열두 제자들은 주를 따라 올라갔었네 철 없는 제 자 심판날에
 우리 여럿 중에 밝히 알게 일러주소서 그 때 천국은 열처녀가
 다섯 처녀들은 기름사러 떠나갔었네 신 랑이 왔네 등불 가진
 모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열수 없구나 그 들하는 말 어서 문을
 구별하는 그 날 불법한자 심판하리라 적 은 일 충 성 큰 일 맡겨

하늘에서 내릴 징조를 보 여달라고 조용하게 와서 묻는 말
 등에 불을 켜서 가지고 혼 인 잔치에 신랑 맞으 러 감 같 도 다
 처녀들아 와서 맞으라 모 든 빈객은 혼인 잔치 참여 하여 라
 열어 들어 가게 하소서 신 랑하는 말 나는 너를 알지 못 한 다
 많은 하늘 상급주리라 맡 은 자에 게 구할 것은 충성 이니 라

(5절 작사 : 김도석)